

江陵劉氏世譜序

우리나라 劉姓은 兵部尚書 文襄公 荃이 趙宋으로부터 高麗로 옮겨짐에
 비롯되었고 文襄 이전에 있어서 漢에서는 皇으로 宋에서는 儒로서 크
 게 울렸으며 文襄 이후에도 李韓의 開國功臣 文僖公 敞에 이르러 玉川
 府院君에 受封되었으므로 文僖의 后孫이 이미 江陵으로 貫을 삼았으니
 玉川은 곧 羽溪의 舊號로서 江陵에 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世代가 점차 멀어지고 源流가 갈수록 나누어져 각기 그 貫을
 달리하여 淸風 北靑 慶州 忠州 會原 文化 水原 全州 漢陽 淸州 開興 등
 으로 列立되었던 것을 純祖때에 이르러 禮曹에 控訴하여 江陵에 歸一
 시켜서 族譜를 刊行하였고 그 뒤를 이어 여러 차례 修譜하여 오늘에 이
 르렀다

이제 劉氏는 다시금 修譜의 前業을 承승하여 「江陵劉氏世譜」를 펴
 낼제 編修委員長 學鍾이 不佞에게 序를 청한다 적이 생각컨대 당초 우
 리나라 族譜는 비록 宋나라 蘇洵의 遺法을 따라 시작되었으나 李韓 中
 葉에 이르러서 이미 盛行되어 가위 사람마다 牒이 있고 집집마다 乘이
 있고 氏氏마다 譜가 있어 그 先祖를 높이고 宗家를 공경하고 行列을 밝

히고 事行을 갖추어 실어 한 할아버지의 子孫이라면 비록 百世를 지나도 至親으로서 敦睦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집안이고 族譜를 상고하여 그 盛衰와 旺憊를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譜가 하나의 學으로서 등장되기에 이르렀음의 사실이다

이제 이 劉氏의 譜는 一천년이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三〇世代가 교체되는 동시에 수많은 官業 文章과 碩學 名節이 輩出된 歷史가 실렸으며 과거의 아름다운 傳統을 슬기롭게 이어받아 미래의 繁榮과 昌大를 열어주는 하나의 寶典이 됨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姓氏가 있으면 宗族이 있고 宗族이 있으면 반드시 族譜가 있나니 族譜가 있음으로서 譜系를 밝힐수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祖上을 求心點으로 宗族끼리 團合하여 尊祖敬宗 睦族의 美風을 振作할수 있는 것이다 程子께서는 「天下의 人心을 管攝하는데는 譜系를 밝히고 宗族을 收合하는데 있다」 하였고 蘇老泉은 「族譜를 보면 孝悌의 마음이 油然而 일어나다」 하였고

우리 劉氏가 陶唐氏의 後裔로 실로 까마득한 옛날이라 漢代에 와서 中國을 統一하고 漢帝國을 創建하여 四百年 동안이나 綿綿히 이어졌으며 宋代에 이르러 尚書公께서 七學士와 함께 高麗에 건너와서 海東의 名族이 되었고 玉川府院君 文僖公께서 朝鮮朝의 建國에 協贊하여 開國功臣으로 至大한 勲業을 남기시고 이후부터 子孫들이 江陵을 本貫으로 삼아 修譜하여 왔으나 世代가 멀어지고 子孫이 繁衍함을 따라 各派에서 任意로 修譜하여 誤謬가 없을수 없고 統一性이 缺如함으로 先王考 紫下府君께서 全體를 統合한 大同譜를 刊行하니 이것이 이른바 甲子譜이다 그후 三十餘年을 經過하여 先考 松雲府君께서 丙申譜를 刊行하신지

도 이미 三十餘年이 지났으므로 僉議에 따라 修譜에 着手하였으나 時
 代의 變遷에 따라 編輯體裁도 大幅修正하여 舊譜의 序文과 上系를 國譯
 하고 모든 叙述은 要領을 따서 簡明히 하여 讀解를 容易하게 하였다
 그 동안 物心兩面으로 協助해 주신 宗親여러분께 衷心으로 感謝드리
 며 이 일을 契機로 더욱 同族間의 紐帶를 強化하여 비록 百子千孫의 많
 은 分派가 생겼다 해도 모두가 한祖上의 分身임을 自覺하여 祖上을 받
 들고 遺德을 빛내기에 힘쓰고 서로가 돕고 和合하여 百代至親의 族誼
 를 더욱 敦篤히 할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甲子晚春 發刊에 즈음하여 後孫 學鍾삼가지음

대개 族譜는 先祖를 尊慕하고 宗家를 敬奉함을 目的으로 하나니 千孫
 이 一祖에서 自出하고 萬派가 一源에서 分流함을 알아서 孝悌之心이 유
 연(油然)히 生하고 敦睦之情이 애연(藹然)히 興하니 참으로 一家의
 信史이기도 하다

우리 劉氏는 본래 中國唐堯의 后裔인 諱累로부터 得姓하여 오다가
 秦末에 至하여 諱邦이 沛에서 일어나서 無道한 秦을 무너뜨리고 強
 暴한 項羽를 무찔러 中國을 統一하여 帝位에 오르니 이분이 곧 太祖高
 皇帝이시다

이로부터 皇統이 綿連하여 西漢十三君二百六年과 東漢十三君二百九
 十六年과 蜀漢二君四十四年等 都合二十八君五百餘年間に 悠久한 帝
 位를 繼承하여 燦爛한 歷史를 이어왔다

漢高祖皇帝의 四十代孫인 竹諫先生(諱荃)께서는 宋의 兵部尚書로
 시 林·薛·許·宋·崔·權·孔等 七學士와 함께 東來하여 慶北 迎日郡 杞溪面에
 奠居하시니 八代孫 菊齋先生(諱承備)은 高麗의 左僕射를 歷任하셨고
 十一代孫 文僖公(諱敞)께서는 李太祖를 도와 朝鮮朝의 建國에 協贊하여 開

國功臣으로 玉川府院君에 封하게 되니 우리 劉氏가 江陵을 貫鄉으로 삼은것이 이때 부터이다

이로부터 名賢과 碩學이 連世繼出하여 東方의 望族이 되었다 우리 劉氏가 大同譜를 刊行한것은 朝鮮英祖辛巳(一七六一)에 비롯하여 其後 數次에 걸쳐 族譜를 續刊하였으나 丙申譜를 刊行한지도 오늘에 이르러 三十餘年이나 되어 變動事項이 있을뿐 아니라 全國的으로 散在해 있는 後孫들이 各自生涯에 奔忙하여 祖先에 대한 觀念이 漸次 稀薄해지고 同族間의 族誼 또한 잊어져서 慶吊間에 相問도 없을 程度임에 이에 여러 族親들이 뜻을 모아 世譜編修推進委員會를 構成하게 되니 不肖一戾 이 猥濫하게 副委員長職을 맡게 되어 跋文을 쓰게 됨은 實로 分에 넘치는 榮光으로 思料되는 바입니다

다오리켜 생각컨데 우리 劉氏가 帝王의 璿源이며 名賢의 後孫임을 矜持로 삼아 祖先의 遺德을 이어받아 더욱 學問과 德行을 닦아 尊祖敬宗의 思想을 昂揚하고 同族間의 紐帶를 더욱 鞏固히 하여 相扶相助의 族誼를 敦篤히 할것을 다짐하는 바이며 아울러 國土가 兩斷된 現時點에서 北에 散在한 同族과의 合譜를 보지 못하게 됨은 遺憾이나 언젠나 그날이

있을 것을 期待하며 所感을 적어 跋文에 代하는 바입니다

甲子晚春 二十四世孫 一歲은 謹識함

병신보서 (丙申譜序)

주역 (周易) 에 말하기를 「적선 (積善) 하는 집에는 반드시 자손에게
경사가 있다」 하였으니 대개 조상 (祖上) 이 큰 공 (功) 과 덕 (德) 을
쌓아야만 자손에게 크게 경사가 나타나는 법이다

그 발현 (發現) 함이 혹은 가깝기도 하며 멀기도 하며 또는 더디기도 하
고 빠르기도 하여 일정 (一定) 하지 않나니 옛날 제요 (帝堯) 께서 큰
德 (덕) 과 지극한 공훈 (功勳) 이 여러 성인 (聖人) 에게 뛰어난서 사
해 (四海) 에 빛이 되고 하늘과 땅에 고루 입히게 되었으나 임금의 자
리를 아들에게 전하지 않으시고 이천년을 지내서 한고조 (漢高祖) 에
와서 크게 나타나서 천하 (天下) 를 통일하여 사백년동안이나 나라를
유지하였고 또 오백여년을 경과하여 송 (宋) 나라에 와서 원성 (元城)
유안세의 생거지 (劉安世) (生居地)) 질부 (質夫) 유순지의 자 (劉絢之) (字)) 자우 (子羽) 유자우 (劉子羽)) 병
산 (屏山) 유자희의 호 (劉子翬) (號)) 등 학자가 배출 (輩出) 하였는데 그와 때를 같

이해서 병부상서 (兵部尚書) 문양공 (文襄公) 계서 칠학사 (七學士) 와 함께 동국 (東國) 에 건너와서 고려숙종 (高麗肅宗) 을 도와 이단 (異端) 을 배척하고 유교 (儒敎) 를 밝히니 이것이 동국의 유씨가 처 음으로 도학 (道學) 을 밝힌 시초로서 또 수백년을 경과하여 조선조 (朝鮮朝) 에 들어와서 옥천부원군 (玉川府院君) 문희공 (文僖公) 계서 이태조 (李太祖) 를 도와 개국 (開國) 의 대업 (大業) 을 이룩하고 격물치지 (格物致知) 성의정심 (誠意正心)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修身齊家 治國 平天下) 의 도 (道) 를 강명 (講明) 하여 오백년 문명정치 (文明政治) 의 기초를 닦으니 이것이 유씨가 강릉 (江陵) 을 본관 (本貫) 으로 삼은 시초로 그후부터 대대로 높은 벼슬에 오르고 이름난 선비가 배출 (輩出) 하게 되었는데 가장 저명 (著名) 한 분만을 든 다해도 은재 (隱齋) 천방 (天放) 술재 (述齋) 의 덕학 (德學) 과 절의 (節義) 는 한 시대의 표준 (標準) 이 될만하고 한말 (韓末) 에 와서는 만송공 (晚松公) 순국의사 회병헌 殉國義士 諱秉憲) 계서 높은 절의 (節義) 로 목숨 을 바쳐 왜적 (倭賊) 에 항거하여 조국광복 (祖國光復) 의 기틀을 닦 으셨고 현대 (現代) 에 와서도 후은 장관 (將官) 으로서 국방 (國防)

에 종사하고 혹은 학자로서 정주학(程朱學)을 강명(講明)하기
 힘쓰니 이것이 모두가 제요(帝堯)의 위대(偉大)한 덕(德)과 적
 선(積善)의 여음(餘蔭)이 오래가도록 더욱 후손에게 나타난
 것이
 라 하겠나 아! 아름답도다

강릉(江陵)을 본관(本貫)으로 하는 유씨가 여러번 대동보(大同
 譜)를 하였는데 금년 가을에 다시 계속하여 수보(修譜)할 때 만송공
 (晩松公)의 손자 재순(載淳)이 나에게 서문(序文)을 부탁함에 내
 군이 사양하여도 더욱 간청하므로 말하기를 제요(帝堯)께서 백성을
 고르게 하고 밝히시고 천하(天下)를 합하여 화평(和平)하게 하심이
 실로 구족(九族)(고조로 부터 현손까지의 직계친과 방계친으로 삼종형제까지를 말함)
 (高祖) (玄孫) (直系親) (傍系親) (三從兄弟)

을 친목하게 하는데서 부터 시작하였으니 그 근본은 큰 덕(德)을 밝
 히는데 있고 그 도(道)는 진실로 중도(中道)를 잡는데 있다 이것
 이 천만세(千萬世)의 도학(道學)의 근본이며 문양공(文襄公)과
 문희공(文僖公)께서 임금을 도와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하는데 이
 도(道)를 쓰신 것이다

지금 유씨가 일족(一族)을 한데 합쳐 대동보(大同譜)를 하였으니

구족 (九族) 을 친목하게 하는것은 조상에게 이어받은 정신이라 할것

이나 다시 큰 덕 (德) 을 밝히고 진실로 중도 (中道) (中庸의 도) 를 잡

기에 제각기 힘쓴다면 장차 몸을 닦고 겨레를 친하게하여 조상의 여음

(餘蔭) 이 나타나기를 현재 (現在) 에 그치지 않으리라 믿는다

유조군탄 (柔兆涖灘) 丙申 一九五六年 유화절 (流火節) 七月 옥산 (玉山)

장조현 (張祚鉉) 삼가서 (序) 함

易曰積善之家必有餘慶盖必有大功德積累於祖先而後餘慶方大發於其子孫然其發也或近或遠或遲或速不可以一揆論也粵若稽古帝堯峻德放勳卓冠千聖至于光四表格上下而惟其不傳之子是以歷二千年而始發於漢 祖奄有天下歷年四百又積五百餘年而繼發於宋有元城質夫子羽屏山諸君子之盛時則有兵部尚書文襄公與七學士東渡佐麗肅宗以闢異端明斯道此東國劉姓之始爲東國道學之倡而歷數百年又發於我朝有玉川府院君文僖公佐聖祖開國講格致誠正修齊治平之道以基五百年文明之治此又貫江陵之始而簪纓世赫名碩繼作姑舉其最著者而論之若隱齋天放述齋諸賢之德學節義允爲一世之望而逮國之末有晚松公之節義以一死鼓群心用基我復國而及至今日有出而禦亂主盟戎壇者有處而講學尊尚程朱者此莫非帝堯盛德積善之餘慶愈久而愈發於後孫也於乎休哉劉氏之貫江陵者屢修大同之譜是歲丙申之秋將續修之晚松公之孫載淳責余以弁其首者余固辭不得則作而曰帝堯之平章百姓協和萬邦實推自親九族而其本則在於明峻德其道則在於允執中此萬世道學之源而文襄文僖公之所用以佐國治平者也今劉氏既合族而修譜則其於親九族之道可

謂有所受矣更以明峻德允執中人人自勉則將不止於修厥身親厥族而餘慶之發又不止於今日也

柔兆澍灘流火節 玉山 張祚鉉謹序

발 (跋)

종법 (宗法) 이 폐 (廢) 해진 뒤로 족보 (族譜) 가 지어졌으니 이것이 주관 (周官) 이 세계 (世系) 를 맡아서 소목 (昭穆 조상의 뒤) 을 분별하는 법이며 대기 (戴記) 에 이른바 친족 (親族) 에게 친목하고 조상을 높이는 뜻이다

정자 (程子)께서 말씀하신 「천하 (天下) 의 인심을 수습하고 종족 (宗族) 끼리 단합하여 풍속을 순수 (純厚) 하게 하는 길이다」

족보 (族譜) 하는 법이 나누어서 파보 (派譜) 도 되고 합하여서 대동보 (大同譜) 도 되나니 파보 (派譜) 는 가까운 친족 (親族) 끼리 더욱 친밀하기 위함이요 대동보 (大同譜) 는 먼 친족이 소원 (疎遠) 해지는 것을 염려하여 만든 것이다 우리 문중에서 족보를 하게 되는 것도 또한 이런 뜻이다

세상에서 족보를 논하는 사람이 반드시 소명윤 (蘇明允 소순) (宋나라 학자) 을 말하나 소씨 (蘇氏) 의 족보는 고조이하 (高祖以下) 사세

(四世) 밖에 되지 않으며 우리 족보는 고려시대 (高麗時代) 의 국재공 (菊齋公) 으로부터 현재까지 이십칠세 (二十七世) 또는 이십팔세 (二十八世) 나 되니 소씨 (蘇氏) 의 족보와 비유할 바가 아니다. 이로 인해 조상의 사적과 벼슬과 자손들의 생졸 (生卒) 과 가취 (嫁娶) 등이 일목요연 (一目瞭然) 하게 알수 있으며 먼 종족 (宗族) 끼리 대해보지 못한 사람을 족보가 없으면 자세히 알수 없을 것이니 어찌 족보가 없을 수 있겠는가. 먼저번에 갑자보 (甲子譜) 一九二四年을 말함 를 간행 (刊行) 한지도 이미 삼십여년 (三十餘年) 이 되어서 세상이 변천됨을 따라 사람도 많이 바뀌어지니 도정절 (陶靖節) 도연명 (陶淵明) 동진의 시인 (東晉) 이 말한바와 같이 「감회 (感懷) 는 오로지 깊은바 있다」 는 말은 이를 두고 말한 바이다.

금년에 족질 (族姪) 재순 (載淳) 과 상의한 후에 종족 (宗族) 을 모아 의논한바 여러 사람의 합의를 얻어 송양재 (嵩陽齋) 에 보소 (譜所) 를 설치하니 이곳은 곧 문희공 (文僖公) 을 봉안 (奉安) 한 곳으로 여기에서 이일을 하게된것이 또한 당연한 일이다. 이년의 세월에 걸쳐 일을 마치니 밤낮으로 정성을 다하여 모든 임무 (任務) 를 다한 분은 재

순(載淳) 이요 끝까지 필사(筆寫)를 맡아 수고를 한분은 만상(萬相)이었고 나도 또한 교정(校訂)을 보았으나 식견(識見)이 부족하여 잘못됨이 없지 않았는지 실로 두려워하는 바이다

아! 족보는 이미 되었으니 조상의 아름다운 말솜과 행적(行蹟)이

완연(宛然)히 눈앞에 받들어 모셔서 뒷세상에 모범이 될 것이다 본관(本貫)의 내력(來歷)과 상조(上祖)와 중조(中祖)의 나아가서 벼슬하여 현달(顯達)하심과 혹은 숨어서 학문을 닦으신 자취와 혹은 덕행(德行)으로 혹은 문장(文章)으로 혹은 효우(孝友)로 혹은 충신의사(忠臣義士)로서의 빛나는 자취는 이미 다른사람이 자세히 기록한 바이기도 중복(重復)을 피한다

병신(丙申) 첫겨울 하한(孟冬)下澣 一九五六年 후손(後孫)한열(漢烈)삼가 발(跋) 함

自夫宗法廢而族譜作此周官所謂典世系辨昭穆之法也載記所謂親尊祖之義也程夫子所謂管攝天下人心收宗族厚風俗之道也譜之爲法或分以爲派譜或合以爲大譜派譜欲其親而近大譜慮其疎而遠吾門前後之譜蓋此意也世之論譜者必稱蘇明允然蘇之譜不過高祖以下四世也今吾之譜自麗朝菊齋公以下至今爲二十七世八世矣比蘇譜固何如哉因是而祖先之事蹟官爵子孫之生卒嫁娶開卷瞭然矣且宗族之遠而不見面者非譜無以爲考疎而不知名者非譜無以爲詳然則譜安可無也往在甲子

之譜今已過三十有餘禠矣今又人易世疎陶靖節所謂慨然寤歎者政此時也年間與族姪載淳爛商議到會宗收論僉意忽合遂設譜事于嵩陽齋齋即文僖公安靈之所則于以是役固有宜矣閱二歲而功告訖夙夜殫誠專任凡百之責者載淳也後先踵至不靳泓穎之役者萬相也余亦不無訂編之勞然識淺聞寡恐或有以誤易誤之弊自不勝主臣之極噫譜今成矣先世之嘉言善行宛若面承而親服足以爲法於後世者也至若姓貫之原因來歷上祖中祖之出處顯達與夫以下諸公之或德行或文章或孝或友或忠或義前人之述已備矣不必架疊焉

跋 (跋)

歲丙申孟冬下泮

後孫漢烈謹跋

족보 (族譜)는 모든 종족 (宗族)을 한책에 모은 것이다. 겨레에 족보

(族譜)가 있는지가 오래부터이다. 주 (周)나라에 소사씨 (小史氏) (國

라)의 기록체보등을 말아보던 주관의 이름 (家) (記錄) (系譜) (周官)가 세계 (世系)와 소목 (昭穆)을 분별

하는 직책 (職責)을 말아보았고 송 (宋)나라의 구문충 (歐文忠)과

소로천 (蘇老泉)과 황태사 (黃太史)의 족보 (族譜)는 더욱 내용이

갖추어졌으나 소씨 (蘇氏)는 복 (服)이다 하는데 까지에 그쳤고 황

씨 (黃氏)는 칠세 이상 (七世以上)은 기재 (記載)하지 않았으니 또

한 종족 (宗族)의 범위가 좁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씨족 (氏族)을 숭상하여 겨레가 있으면 반드시 족보 (族

譜)가 있으니 종족 (宗族)을 단합하고 풍속 (風俗)을 순후 (淳厚)하게 하여 조상을 높이고 종가 (宗家)를 공경하는데 실로 도움이 되

는 것이다

우리 유씨 (劉氏) 가 도당씨 (陶唐氏) 의 후예 (後裔) 로서 하 (夏) 나라 때는 유씨 (劉氏) 로 주 (周) 나라 때는 사씨 (士氏) 또는 범씨 (范) 로 성 (姓) 을 했다가 한 (漢) 나라에 와서 유씨 (劉氏) 로 하여 천하 (天下) 를 통일하고 사백년 (四百年) 을 향국 (享國) 군주 (君主) 가 나라를 계승하여 머물러 있음 하였는데 송 (宋) 나라에 와서 죽간공 (竹諫公) 계서 처음으 로 고려 (高麗) 에 건너와 성학 (聖學) 을 밝히시고 조선조 (朝鮮朝) 에는 선암공 (仙菴公) 계서 대학 (大學) 의 치국평천하 (治國平天下) 의 도 (道) 로써 이태조 (李太祖) 를 도와 정치 (政治) 하여 처음으로 강릉 (江陵) 을 본관 (本貫) 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대대로 족보를 해 왔는데 우리 선친 (先親) 계서 갑자년 (甲子年) 에 강릉유씨대동보 (江陵劉氏大同譜) 를 편찬 하였는데 지금 또 수십년을 경과 하는 동안에 어린사람이 장성 (長成) 하게 되고 늙은이는 별세 (別世) 하게 되어 자손 (子孫) 이 더욱 번성하였기로서 계속하여 수보 (修譜) 하지 않을수없게되어 첨종 (僉宗) 의 의견이 합치 되므로 을미년 (乙未年) 봄에 시작하여 이듬해 겨울에 일을 마치

계 됨에 재순 (載淳) 에게 그 전말 (顛末) 을 기록하여 끝에 붙이기를
 청하므로 대략 위와같이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몸에서 갈려나와 천만
 인 (千萬人) 의 자손이 다같은 한 조상에 근원 했으니 진실로 능히 친
 족 (親族) 끼리 친밀하는 도리를 다한다면 백세 (百世) 를 지냈다 해
 도 한 몸같이 생각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부자형제 (父子兄弟) 라
 도 피차 (彼此) 너와 나의 구분이 생김을 면치 못하리라 지금 족보가
 되었으니 조상을 높이고 종가 (宗家) 를 공경하며 종족 (宗族) 을 단
 합하여 친목을 두터이 하는 것이 어찌 종족 (宗族) 을 널리 수합 (收合)
 (하는 뜻이 아니겠는가 오직 우리 종족 (宗族) 은 더욱 힘쓸 것이다
 병신 십일월 상현 (丙申陽月上弦) 후손 (後孫) 재순 (載淳) 삼가
 발 (跋) 함

譜者普其族也族之有譜久矣周有小史氏掌典系世辨昭穆之職宋有歐文忠蘇老泉黃太史之譜則益
 備矣然蘇氏則只止於服盡黃氏則七世以上不載焉其於普族之義亦狹矣我東尤以氏族相尚凡有族
 莫不有譜其於收宗族厚風俗尊祖敬宗之道信可謂有補矣我劉本系出陶唐之後在夏始姓劉在周爲
 士氏范氏至漢爲劉氏遂有天下歷年四百在宋有竹諫公始東渡高麗倡明聖學入我朝有仙庵公以大
 學之道佐 聖祖爲治始貫江陵連世修譜而至我先君甲子始修江陵大同之譜及今又數十年幼者壯

老者死生齒又益蕃不可不續修僉議詢同肇役于乙未之春至明年冬而功告訖僉謂不可無一言記其顯趾屬載淳殿其尾遂略記如右且曰一人而分爲萬孫萬孫而同源於一祖苟能推親親之道則百世而一身矣不能推親親則其於父子兄弟已有彼此物我之分則推不去矣今既修譜矣則尊祖而敬宗收族而敦親豈非普族之義耶惟吾宗之益勉焉

丙申陽月上弦 後孫載淳謹跋

갑자보시 (甲子譜序一九二四年)

내가 강릉유씨 (江陵劉氏) 의 족보 (族譜) 를 보니 근본을 소중히 여기고 종족 (宗族) 끼리 친목을 돈독 (敦篤) 히 함을 깊이 느낀 바이다
대저 조상 (祖上) 은 나의 몸의 근본이니 마치 나무의 뿌리와 물의 근원과 같다 근원없이 어찌 물의 분류 (分流) 가 있을 것이며 뿌리없이 어찌 가지와 잎이 있겠는가 이리하므로 호도하는 자손은 반드시 먼 조상을 천양 (闡揚) 명백하게 들이
걸음으로 나타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먼 조상은 대개 실전 (失傳) 하게 되는 것은 보첩 (譜牒) 에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어찌 탄식할 일이 아니겠는가

유씨 (劉氏) 들이 이것을 두렵게 여겨서 족보를 하는데 먼 조상을 함께 실어 유씨 (劉氏) 가 처음으로 성 (姓) 을 전해 여러 왕조 (王朝)

를 거쳐 한(漢) 나라 사백년(四百年) 동안에 걸쳐 빛나는 황통(皇
 統)을 계승(繼承) 하여 명공거경(名公巨卿)이 배출(輩出)하였는
 데 병부상서공(兵部尚書公)께서 여러 학사(學士)와 함께 우리 동
 국(東國)에 와서 명성(名聲)과 공적(功績)이 고려사(高麗史)
 에 실려 있다. 문희공(文僖公)께서 고려의 운명이 끝나고 천명(天名)
 (이이씨조선(李氏朝鮮)의 불음을 받아 건국(建國)의 대업(大業)
)에 참여하였으나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산림
 (山林)에 뜻을 두어 신선(神仙)을 따라 놀기를 원하니 태종(太宗)
 (께서 왕위(王位)에 오르시매 대우(待遇)가 더욱 융숭하여 공심
 일시(公心一視)공의 마음은
한결 같다)란 어필(御筆)을 써서 공(公)의 높은 뜻
 을 기리고 이어서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을 봉하고 사후(死後)에
 문희(文僖)의 시호(諡號)를 내리시니 옥천(玉川)은 곧 강릉(江
 陵)의 우계(羽溪)로서 유씨(劉氏)가 강릉(江陵)으로 본관(本
 貫)을 삼은 것은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의 증조(曾祖)인 참의공
 (參議公)을 일세(一世)로 모신 것도 실로 이때문이니 그 근본을 소
 중히 여김이 이와 같다.

무릇 우리 같은 조상의 자손이 비록 나누어서 소원(疎遠)해졌다 해도 조상의 기맥(氣脈)을 같이 타고난 바이며 조상께서 여러 자손을 사랑하는 마음도 또한 같을 것이다 자손된 사람은 마땅히 조상의 마음을 본받아 친목의 도리를 다할 것이나 혹은 보첩(譜牒)이 실전(失傳)되어 같은 조상의 자손이 도리혀 갈가는 사람처럼 보기 쉬우니 그러므로 종족(宗族)을 한데 모아 족보를 편찬하는 법이 옛부터 있었으나 지금 유씨(劉氏)의 족보는 더욱 자세하여 누구가 누구의 손자(孫子)이며 누구의 아들이 되며 누구의 형(兄) 또는 동생 됨과 생졸년월(生卒年月)과 작위(爵位)와 이력(履歷) 및 배위(配位)와 거주지(居住地)와 묘소(墓所) 등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조항(祖行)이나 속항(叔行)이 되거나 어린일 경우에는 공경을 다하고 자질항(子姪行)이나 손항(孫行)이 되고 또 젊은 사람일 경우에는 애호(愛護)하게 되니 그 돈목(敦睦)함이 또 이와 같다하였다

아!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의 깊은 덕(德)과 두터운 여음이 면면이 이어져서 중세(中世)에는 천방옹(天放翁)의 학문과 은재공(隱齋公)의 절의(節義)와 술재공(述齋公)의 덕행(德行)이 녀

녀히 한세상의 표준이 될만하였으니 세대(世代)가 멀어지매 후손이
 쇠미(衰微)하게 되었으나 쇠미함은 나타남의 근본이다 지금에 와서
 의사(義士) 만송공(晩松公)께서 나라가 망함을 통분하여 의(義)를
 지켜 원수에게 항거하여 옥중(獄中)에 서 순국(殉國)하니 세상에 당
 (唐)나라의 충신(忠臣) 안고경(顔杲卿) 현종의 충신 시호는 충절
 과 함께 추앙하니 국가의 흥망(興亡)과 관계되는 중대(重大)한 일
 이 아니고서야 충신(忠臣)과 지사(志士)가 절의(節義)를 나타
 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내가 특히 감상(感想)이 깊다하는 것도 이때
 문이다

만송공(晩松公)의 아들 홍렬씨(洪烈氏)가 수보(修譜)가 끝날
 무렵에 나에게 서문(序文)을 청하니 삼가 생각컨데 옥천부원군(玉
 川府院君)을 일찌기 자강서원(紫岡書院) 유지는 경북칠곡북삼에있음에 향
 사(享祠)하였는데 나의 본생증왕고(本生曾王考)께서 유사첩(有司
 牒)에 이름이 실려있고 선부군(先府君)께서 어필각기문(御筆閣記
 文)을 지으실 때 나에게 명하여 글씨를 쓰게 하시던 일이 역력히 어제
 일 같으니 세의(世誼)의 중함을 생각해도 이일에 사양할수 없으므로

드디어 이 글을 지어서 서문(序文)에 가늠하는 바이다

갑자 첫여름 상한(甲子孟夏上澣) 성균진사(成均進士) 금주(金州)

허용(許慵) 삼가서(序) 함

余竊於江陵劉氏譜見重本焉見悖族焉又深有所感焉夫祖先吾一身之本猶之木之根水之源也無源而曷以有派流無根而曷以有柯葉乎是以慈孫必追遠而闡先焉然而人多遠代祖先之失傳曷由於譜牒無徵也豈勝慨歎哉劉氏爲是之懼修譜而具載遠代始自劉累傳姓而漢家四百年皇統赫然厥後名公巨卿代不乏賢洎兵部尚書公與諸學士自中土東來聲烈載麗史歷傳至文僖公知麗社運訖天命有歸於李朝膺太祖召命贊成洪猷而簿鍾鼎志山林願從餐霞仙子號以仙庵及太宗嗣位際遇極隆書公心一視而褒獎之仍封玉川府院君歿而諡文僖玉川即江陵之羽溪也劉氏之爲本江陵自玉川府院君始焉修譜而尚書公以後復起一世于玉川府院君之曾祖參議公實以是也其重本如斯哉凡我祖先之諸孫雖分而至遠族與我爲祖先餘氣所同也祖先之愛諸孫亦所同也爲遺孫者當體祖先之心以極夫雍睦之道而或譜牒失傳雖同祖之諸孫乃反不知視之爲路人焉所以合族編譜自前代有之今劉氏譜尤加詳某爲某之孫某爲某之子某爲某弟兄與夫其生卒年月其爵位履歷其聘氏若所居坊曲若墓地一開卷輒瞭然在目爲祖行若叔行若年長則盡敬焉子若孫行而爲年弱少者則存撫焉其悖于族如斯哉噫以玉川府院君之深仁厚蔭而逮于中葉有若天放翁之學術隱齋公之節義述齋公之德行允爲一世之望焉賢澤寢邇後承衰微而微者顯之基也暨于今而義士晚松公憫國淪亡義不屈辱竟死牢獄世皆擬之於顏杲卿苟非國家興亡之大關頭則忠臣志士亦難以表見如斯歟余所以深有所感者是也晚松公之胤子洪烈氏譜垂成托余以一言竊念玉川府院君祠享曾在紫岡書院而我本生曾王考公載名有司牒我先府君又嘗撰御筆閣記命余小子書之歷歷如昨日事揆以世誼之重有難可辭於

相玆役遂書此爲譜序云爾

甲子孟夏上澣 成均進士 金州許墉謹撰

갑신보서 (甲申譜序)

高宗二十一年
一八八四年

대저 족보 (族譜) 는 가승 (家乘) 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가승 (家乘) 이 곧 역사 (歷史) 이니 수보 (修譜) 하는데 사법 (史法) 을 쓰지 않으면 족보 (族譜) 가 될 수 없으리라. 우리나라가 문헌 (文獻) 이 부족하여 구가세족 (舊家世族) 이 천백대 (千百代) 의 세계 (世系) 를 전 해온 집이 많지 않으며 그중에도 혹은 선후도착 (先後倒錯) 하고 적당히 맞추어서 잘못 기록하여 마치나 백 (百) 갈래 물이 뒤섞이어 청탁 (淸濁) 을 구별하지 못하니 이것이 식견 (識見) 있는 사람으로 탄식을 금치 못하는바이다.

우리 종족 (宗族) 이 보계 (譜系) 를 이어온지 오래이고 연원 (淵源) 과 파계 (派系) 또한 까마득하여 이어지기 어려우나 문희공 (文僖公)께서 고려조 (高麗朝) 에 현달 (顯達) 하여 조선초기 (朝鮮初期) 에 더욱 나타나서 문장 (文章) 과 덕업 (德業) 이 역사를 빛냈으나 후손들이 제승하지 못하고 사방 (四方) 에 흩어져서 미산소씨 (媚山蘇氏) 의

효제 (孝悌) 를 다하는 뜻을 이루지 못한다 누가 우리종족 (宗族) 의
 뿌리와 지엽 (枝葉) 이 이같이 무성한 줄 알겠는가 근래 (近來) 에 호
 중 (湖中) 의 종인 (宗人) 훈 (墳) 이 보첩 (譜牒) 을 간행했으나 그
 식견 (識見) 이 고루 (孤陋) 하고 처사 (處事) 함이 밝지 못하여 혹은
 지파 (支派) 를 잘못알고 보계 (譜系) 를 이으기도 하고 혹은 종계 (宗
 宗系) 를 혼동하여 잘못 이은 것도 있어서 믿음직한 족보 (族譜) 와 실
 록 (實錄) 으로 세상에 전할 수 없으므로 갑신년 (甲申年) 중춘 (仲春)
 에 내가 종손 (宗孫) 정진 (慶眞) 과 함께 선영 (先塋) 에 성묘 (省
 墓) 갔다가 서울의 종장 (宗長) 정운씨 (旌運氏) 집에 유하게 되어 족
 보의 잘못됨을 말하고 장차 여러 종친 (宗親) 에게 통지하려 할 때 마
 침 호남 (湖南) 의 종인 (宗人) 필명 (弼明) 과 흥택 (興澤) 양군이
 서울에 와서 보첩 (譜牒) 의 잘못 됨을 살피시고 자손의 마음을 깊이
 깨우치지 않았다면 남북수천리 (南北數千里) 밖에 흩어져 있는 자손이
 어찌 뜻을 같이 하여 기약없이 함께 모여 이 일을 함께 의논 하겠는가
 이에 여러 집가승 (家乘) 을 상고하고 둔촌외손록 (遁村外孫錄) 둔촌은
문희공의 장인임 (文僖公) (聘丈) 을 참고하여 부원군 (府院君) 의 삼파자손 (三派子)

孫)을 수록 (收錄) 하여 간행하니 이 족보가 나오므로 먼저 족보가 근
 실 (謹實) 하지 못함이 스스로 밝혀지게 되었다
 아! 여러 종친 (宗親) 들은 이 족보의 옳게 산정 (刪正) 됨을 보고
 세덕 (世德) 을 우러러 보고 근원과 파계 (派系) 의 올바름을 본다면
 효제 (孝悌)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서 옛사람에 양보하지 않을
 안다

후손 (後孫)

이진 (爾眞)

이삼가서 (序)

함

夫譜出於家乘乘是史也是故修譜而不用史法則於譜何以哉我東方文獻不足舊家大族之能傳世系
 於千百代之遠者無幾而其或顛倒錯亂傳會杜撰有若百派混流涇渭難辨則此有識君子所以感歎於
 氏族類譜者也吾宗受系玄遠淵源流派邈不可嗣承而文僖公清顯於麗朝丕闡於國初其文章德業昭
 載史乘而未裔後孫未克承籍流落四方岨山孝悌之義猶未得修舉則夫孰知靈根之柯葉若是其蕃茂
 哉近者湖中宗人頃刊出譜牒而其見識既孤幹事不明或有誤認支派而繼續或有混淪宗系而冒屬者
 其不可謂信譜實錄而俾傳于世也明矣歲甲申春之仲不肖與宗孫慶眞爲省先墓仍留於洛之宗長炆
 運氏家以譜錄之爽誤將欲發文於遠近諸宗矣適湖南宗人弼明興澤兩君跋涉入京以改新譜冊來謀
 於我嗚呼是豈偶然哉如非我先祖默感於譜牒之謬誤以喻其衷則各居南北數千里之外者其何能同
 憂同志不謀不期而聚于一處共斯事哉於是考閱諸家家乘參證遁村外孫錄收錄府院君三派子孫而
 鉅之梓焉此譜一出前譜之未能謹實自較如也嗟我諸宗覽斯譜而知筆削之得宜仰世德而審源派之

歸正則油然孝悌之心似不讓於古人云爾

後孫 爾眞謹序

을해보서 (乙亥譜序)

씨족 (氏族) 이 보첩 (譜牒) 이 있는것은 옛부터 이다 그러나 종통 (宗統) 을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조상 (祖上) 을 높이며 친족 (親族) 을 통합 (統合) 할수 있겠느냐 이것이 정자 (程子) 와 장자 (張子) 께서 반드시 종법 (宗法) 을 말씀한 바이다

강릉유씨 (江陵劉氏) 가 새로 족보 (族譜) 를 간행 (刊行) 할때 나에게 서문 (序文) 을 부탁하므로 상고해 보매 유씨 (劉氏) 가 거창 (居昌) 에서 처음 일어나서 중세 (中世) 에 우계 (羽溪) 로 옮겼다가 문희공 (文僖公) 께서 조선개국공신 (朝鮮開國功臣) 으로 관향 (貫鄉) 을 따라 봉작 (封爵) 을 받으시고 삼대 (三代) 를 추증 (追贈) 받았으니 강릉유씨 (江陵劉氏) 의 족보는 마땅히 문희공 (文僖公) 의 증조 (曾祖) 이신 참의공 (參議公) 으로 시조 (始祖) 로 삼을 것이나 병오보 (丙午譜) 가 거창 (居昌) 의 예 (例) 에 따라 계대 (系代) 하였으니 조

상을 높이고 종가(宗家)를 세우는 뜻이 아니고 또한 정자(程子)의 말씀대로 부형(父兄)이 자제(子弟)를 따르는 혐의를 면치 못하므로 지금 새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미 시정(是正)하여 따로 참의공(參議公) 이상(以上)의 팔세(八世)를 전면(前面)에 올려서 유래(由來)를 밝히고 또 같은 조상의 자손으로 불행(不幸)이 구보(舊譜)에 누락(漏落)된 것을 소목(昭穆)을 찾아 함께 넣어서 근원을 찾게 하니 근본을 소중히 여기고 일족(一族)을 단합(團合)하는 도리(道理)를 다하였다

아! 참의공(參議公)의 세덕(世德)은 고려조(高麗朝)에 크게 나타나서 문희공(文僖公) 사형제(四兄弟)께서 정심성의(正心誠意)의 학문으로 조선조(朝鮮朝)에 크게 현달(顯達)한 바이나 그 후 수대(數代) 동안 쇠퇴하였으므로 세상에서 유씨(劉氏)가 이름 있는 집안인줄 아는 사람이 적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보계(譜系)를 밝혀서 친소원근(親疎遠近)이 밝히게 되었으니 문헌(文獻)이 서로 전하고 친목(親睦)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루어 질수 있겠는가 이것이 지극히 귀중한 일로서 이에 근본을 찾아 종가(宗家)를 세

위 구보 (舊譜) 의 잘못을 시정 (是正) 하니 문 (文) 과 질 (質) 이 빛
 나게 갖추어져서 더욱 번창 (繁昌) 할 증조라 하겠다 내 실로 이점에
 감탄하여 글하지 못함을 사양치 않고 대략 이같이 적으니 글을 부탁한
 사람은 참의공 (參議公) 의 십칠대손 (十七代孫) 언교 (彦教) 이다

통정대부 성균관제주 (通政大夫成均館祭酒) 은진 (恩津) 송치구 (

宋穉圭) 서 (序) 함

氏族之有譜牒古矣然不明於立宗之義何以尊祖而收族此程張二子之必以宗法爲說也江陵劉氏重
 修其族譜屬余爲之序按劉氏其源出於居昌而中世移寓于羽溪至文僖公以 李朝開國勲既因貫受
 封而有三代追 贈則江陵之譜當以文僖公會祖參議公爲始祖而丙午譜世次只仍居昌之例則殊非
 尊祖立宗之義而亦不免於程子所謂父兄從子弟者矣今重修而釐正之者不亦善乎旣釐正而別叙參
 議公以上八世于前以明其所自來且同根諸派之不幸見逸於舊譜者則合敘昭穆使得以溯其源其於
 重本收族之道可謂盡矣噫參議公世德昭著於麗朝及文僖公四昆季亦以誠正之學清顯於 李朝其
 數世而遂不復顯達故世之知劉氏之爲古家者蓋鮮矣然劉氏能明其譜系遠近親疎無所差失苟非文
 學相傳敦睦是修者安得如是此已可貴而乃復根究立宗之義追正舊譜之誤則又豈不其彬彬而益
 有昌大之漸乎余實有感於斯不以無文辭而略書之如此來請文者參議公十七代孫彦教也

通政大夫成均館祭酒 恩津 宋穉圭序

을사보서 (乙巳譜序)

씨족 (氏族) 을 기록하는 것은 옛날 사관 (史官) 이 하게 되었다. 주 (周) 의 소사 (小史) 가 세계 (世系) 를 정하고 소목 (昭穆) 을 분별하므로 옛부터 세본 (世本) 이 있어서 대종 (大宗) 과 소종 (小宗) 의 법 (法) 이 있어 위로는 나라에서 다스리고 아래로는 종손 (宗孫) 이 다스리게 하여 이로써 높힐것은 높히고 친족 (親族) 을 친목 (親睦) 하게 하여 겨레를 단합하게 하였고 또 팔형 (八刑) 주대의여덟가지형벌 (周代) (刑罰) 을 마련하여 화목하지 않은 사람을 응징 (膺懲) 하게 하여 사람마다 이 정신을 본받게 되면 반드시 조상을 생각하고 가세 (家世) 를 보전하여 예법 (禮法) 속에 행동하며 삼가하고 조심하여 감히 방자하게 형벌 (刑罰) 에 빠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그러므로 나라마다 보학 (譜學) 을 숭상하고 집집마다 보계 (譜系) 가 있었으나 후세 (後世) 에 와서 성씨 (姓氏) 를 분별하고 보계 (譜系) 를 정하는 관직 (官職) 이 없어지고 종법 (宗法) 이 폐해져서 씨족 (氏族) 이 문란하여 종종 그 소자출 (所自出) 을 알지 못해 스스로 근본을 끊어서 분파 (分派) 가 흩어져 그칠 바를 몰라서 마치나 공중

에 날으는 새처럼 숲속을 달리는 짐승처럼 모이고 흩어짐이 무상(無常)하여 인도(人道)가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

그 근본을 상고하고 체계(系統)를 밝히는 데는 오직 족보(族譜)에 의지하게 되므로 정자(程子)께서 「보계(譜系)를 밝히는 것이 종족(宗族)을 수합(收歛)하는 요법(要法)이라」 하였고 또 말씀하기를 「일년(一年)에는 일년의 공부(公事)가 있다」 하여 근본을 잊지 말 것을 경계 했으니 이것이 유씨(劉氏)가 족보를 통합한 까닭이다

대저 근원을 따로하는 것이 종(宗)이고 조상을 따로하는 것이 족(族)이 되는데 유씨(劉氏)가 명망(名望) 있는 집안이 가장 많아서 이십오파(二十五派)가 되어 중국(中國)에서 종가(宗家)로 이어 왔으며 상서공(尙書公)이 동국(東國)에 나와서 대대로 고관(高官大爵)을 하여 우리나라의 이름난 종족(宗族)이 되고 문희공(文僖公)의 훈업(勲業)과 식량(識量)과 천방옹(天放翁)의 학문(學文)과 은재공(隱齋公)의 절의(節義)와 술재공(述齋公)의 덕행(德行)이 또한 시대에 명망(名望)이 높았다 어진 조상의 여음이 점점 멀어짐에 후손들이 쇠미(衰微)하게 되었으나 쇠함은 왕성하

게 될 근본이다 능히 오종 (五宗) (고조 (高祖) (曾조 (曾祖) (조부 (祖父) (차 (子) (손 (孫) 의 (五代))
 을 높이고 높이는 뜻을 미루어 백세 (百世) 의 돈무하는 족의 (族誼) 를
 두터이 하여 함께 공경하고 사랑하며 두루 생각하고 정의 (情義) 를
 흡족히 하여 효우 (孝友) 로서 조상의 끼치신 법도 (法度) 를 따르며
 겸손하고 검소한 주모를 후손들에게 남겨서 이 정신으로 길이 이어간다
 면 유씨 (劉氏) 의 겨레가 길이 뒷세상에 빛날 것이 어찌 이번 일에만
 인 (原因)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은미 (隱微) 한 것이 마침내 나타나
 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가리워 지지 않는 것이다

학회 (學彙) 와 달원 (達源) 두 사람이 장차 족보를 시작할 때 나에
 게 서문 (序文) 을 부탁하니 내 병들어 사경 (死境) 에 있어 글하지 못
 하나 대략 옛 교훈 (教訓) 을 들어 답하고 이어서 유씨 (劉氏) 에게 말
 하기를 무릇 인생이란 한 사람의 몸으로 나누어져서 자손에게 이어가
 는 것인데 멀어질수록 소원 (疎遠) 해져서 천백 (千百) 으로 성씨 (姓
 氏) 가 갈리는 것이므로 통괄 (統括) 할 수 없을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한
 근본의 지류 (支流) 이니 이것이 모든 백성 모두가 나의 동포 (同胞)
 란 뜻인데 하물며 같은 조상이며 같은 종족 (宗族) 이면 더 말할 게 있

겻는가 말세 (末世) 의 풍속이 야박하여 거의 인륜을 바로잡고 은혜를
 돈독히 할줄을 알지 못해서 병들고 신고 (辛苦) 함도 상관하지 않음뿐
 아니라 서로 헐뜯고 다투어서 몹세하고 죽여서 한접박이면 호월 (胡越)
 서로 멀리 () 처럼 되어 버리니 효제 (孝悌) 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기
 겻는가 옛글에 이르기를 「효제 (孝悌) 는 인 (仁) 의 근본이라」 하였
 으니 능히 진심으로 인 (仁) 을 구하여 구족 (九族) 을 돈독하게 하려
 면 한갓 성음 (聲音) 과 웃는 모습으로만 할것이 아니고 또한 정성이
 있어야 할 것이니 정성이 인 (仁) 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내가 들은바 유씨 (劉氏) 가 당요 (唐堯) 로부터 시초하였다 하며
 요 (堯) 임금이 구족 (九族) 을 친목하게 하는 것을 높은 덕 (德) 으로
 삼았다 하니 유씨 (劉氏) 된 사람은 성인 (聖人) 후예 (後裔) 됨에 부
 그림이 없게 할것을 삼가 생각 할지어다

을사 소한절 (乙巳小寒節 憲宗十一年 一八四五年) 에 당성 (唐城) 홍직필 (洪直
 弼) 은 서 (序) 함

氏族者崇昔史官之所記也周小史定世系辨昭穆故古有世本立大小宗之法爲上下治之資以之尊尊

親親而合族之道行焉又立八刑以糾其不睦者人體斯義則必念厥祖先保厥家世兢兢禮法之中而不敢從肆以滔於刑辟其術然也以故國尚譜系之學家藏譜系之書後世既無別姓定系之官而宗法又廢氏族紊亂往往不知其所自自絕其本根而波流雲散罔有止極譬如飛空之鳥走壙之獸聚散無恒而人道或幾乎熄矣稽其本而明其統惟族之有譜是賴故程夫子以明譜系爲收宗族之要法而曰一年有一年工夫戒不忘本此劉氏合譜之所由作也歟夫別源爲宗別祖爲族而劉氏之望最夥至爲二十五爲中夏之世胄及尚書公東出世襲簪組允爲左海之名族有若文僖公之勲業識量天放翁之學術隱齋公之節義述齋公之德行亦無愧爲一世之望焉賢澤寢邈後承衰微而微者顯之基也信能推五宗之義敦百世之好合敬同愛思周而義洽舉以孝友而繩先矩謙約而貽後穀勿替引之則劉氏之族赫然光於永世者安知不權輿于今茲乎是爲微之顯誠之不可掩者也劉氏學彙達源兩人方尸譜事屬余以弁卷之辭余癘病垂死不能爲文略舉古訓而應之仍語劉氏曰凡有生者皆一人之身所由分分而以嗣以續愈遠愈疏至爲百千其姓者若不可以統括實一本一源之支流斯爲民吾同胞况同祖而共宗者乎末俗滄薄殆不識正倫篤恩之爲何事疾痛痲癢了沒相關甚則相傾相軋胥虐胥戕一膜之外便成胡越孝悌之心何因而生乎傳曰孝悌者爲仁之本苟能實心求仁則馴致敦叙九族是非徒以聲音笑貌爲者亦惟曰誠誠又爲仁之本也吾聞劉氏出自唐堯堯以親睦九族爲峻德爲劉氏者宜思母豢爲聖人之后劉氏乎其欽念哉

崇禎紀元後四乙巳小寒節 唐城 洪直弼序

신사보서 (辛巳譜序)

신비가 좋은 때를 만나 공덕 (功德) 이 조정 (朝廷) 에 나타나고 혜택

(惠澤) 이 민생(民生)에게 입혀지면 그 후손이 반드시 번성하고 창대(昌大)하지 않는 법이 없나니 당우삼대(唐虞三代)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고려(高麗)의 육태사(六太師)가 우리 동국(東國)에 있어 대성(大姓)의 시조(始祖)가 됨을 보아도 알것이다. 그분들이 훌륭한 임금님을 모시고 건국(建國)의 큰 운수를 열어서 공로(功勞)(와 사업(事業)이 역사(歷史)에 빛나고 자손들이 면면히 이어지게 되었다. 시전(詩傳)에 있는 바와 같이 「군자(君子)께서 만년(萬年)토록 복(福)과 녹(祿)을 누리신다」 하였으니 과연 그러하실 것이다.

내가 강릉유씨(江陵劉氏)의 족보(族譜)를 보매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 유공(劉公) 휘창(諱敞)으로 비조(鼻祖)를 삼아 그 세씨(季氏)되시는 병조판서(兵曹判書) 치(治)께서 북청(北靑)에 유배(流配)되어 돌아가심에 자손이 이곳에 살게 되어 북청(北靑)으로 보계(譜系)를 이어가기도 하고 또 옥천(玉川)으로 봉작(封爵)을 받던 처음에는 청성(靑城)에서 갈리어서 청풍(靑風)으로 하던 사람들도 모두 강릉(江陵)을 종파(宗派)로 삼으니 대개 옥천(玉

川) 은 강릉 (江陵) 의 별칭 (別稱) 으로서 모든 유씨 (劉氏) 의 본적
 (本籍) 이 있는 곳으로 지금에 와서 서문 (序文) 을 칭하는 사람은 곧
 옥천부원군 (玉川府院君) 의 십삼세손 (十三世孫) 훈 (塤) 이로서 칭
 풍 (淸風) 과 강릉 (江陵) 과 북청 (北靑) 등 삼파 (三派) 를 수록 (收
 錄) 하고 합하여 족보 (族譜) 를 만드니 국조보감 (國朝寶鑑) 및 서물
 안에 소장 (所藏) 된 만성보 (萬姓譜) 에 상고해 보아도 훈업 (勲業)
 과 가문의 유래 (由來) 와 세대 (世代) 와 지파 (支派) 가 문란하지
 않음을 찾아볼수 있으며 또한 훈 (塤) 이 종족 (宗族) 을 통솔하고 옹
 호하려는 뜻을 볼수있다

대저 옥천부원군 (玉川府院君) 계서 이태조 (李太祖) 를 도와 용승
 한 대우를 받았고 위대한 공로 (功勞) 를 세워 우리나라에 억만년 무
 강 (無疆) 한 정복 (慶福) 을 이룩하게 하셨으니 그 자손이 길이 값음
 을 받았음이 당연한 일이다 이제 보첩 (譜牒) 을 보매 후손이 번성 하
 여 대대로 벼슬길에 오르게 되고 또 혹은 유학자 (儒學者) 로 학행 (學
 行) 이 순수하여 나라와 향리 (鄉里) 에 이름이 나타나게 되니 이것
 이 곧 근원이 크면 흐름이 넓고 뿌리가 깊으면 지엽 (枝葉) 이 무성하

다는 이치가 어긋나지 않은 것이다. 내가 이것으로 유씨(劉氏)의 후손들에게 기대하는 바이다.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 겸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이구채(李奎采)는 서(序) 함(合)

夫遭時之士功烈顯於朝廷德澤被於生民而其後不蕃且昌者未之有也噫唐虞三代尚矣竊稽麗之六太師爲我東方大姓之鼻祖其攀附鱗翼佐啓鴻運勲業炳曜後承綿遠詩曰君子萬年福祿宜之亶其然乎余觀江陵劉氏之譜則以玉川府院君劉公諱敞爲鼻祖而玉川之季兵曹判書治謫卒于北青子孫之仍居北土者系于北青又若玉川勲封之初以青城分系于清風者皆歸宗於江陵蓋玉川乃江陵之號而以諸劉舊籍之在是也今來請余以弁譜之文者即玉川之十三世孫塤也哀錄清風江陵北青三派合爲一譜考諸國朝寶鑑及都下所藏萬姓譜勲庸闕閱世代支派井井不紊於此亦可見塤之有統宗庇族之義矣夫以玉川之佐命太祖風雲之契功業之盛實亦篤業我國家億萬年無疆之休則宜其子孫永受厥報而今觀世牒所在雲仍蕃衍簪纓傳襲又或以儒行粹潔著名鄉邦斯其源大者流廣根深者末茂理自不爽吾以是有待於劉氏之後昆焉爾

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李奎采序

예조에 올리는 글 (禮曹上書)

고려조(高麗朝)의 초년(初年)에 우리 강릉유씨(江陵劉氏)의 시

다는 이치가 어긋나지 않은 것이다. 내가 이것으로 유씨(劉氏)의 후손들에게 기대하는 바이다.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 겸 동지의금부사(同知

義禁府事) 이주채(李奎采)는 서(序)함

夫遭時之士功烈顯於朝廷德澤被於生民而其後不蕃且昌者未之有也噫唐虞三代尚矣竊稽麗之六太師爲我東方大姓之鼻祖其攀附鱗翼佐啓鴻運勲業炳曜後承綿遠詩曰君子萬年福祿宜之亶其然乎余觀江陵劉氏之譜則以玉川府院君劉公諱敞爲鼻祖而玉川之季兵曹判書治謫卒于北青子孫之仍居北土者系于北青又若玉川勲封之初以青城分系于清風者皆歸宗於江陵蓋玉川乃江陵之號而以諸劉舊籍之在是也今來請余以弁譜之文者即玉川之十三世孫塤也叢錄清風江陵北青三派合爲一譜考諸國朝寶鑑及都下所藏萬姓譜勲庸閱世代支派井井不紊於此亦可見塤之有統宗庇族之義矣夫以玉川之佐命太祖風雲之契功業之盛實亦篤棊我國家億萬年無疆之休則宜其子孫永受厥報而今觀世牒所在雲仍蕃衍簪纓傳襲又或以儒行粹潔著名鄉邦斯其源大者流廣根深者末茂理自不爽吾以是有待於劉氏之後昆焉爾

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李奎采序

始祖 荃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七世 八世 九世 十世

子堅規 子春茂 子成 子贊 子昇 子海 子洽 子權 子覃

子環 子瑾

子承備 子松柏

子松檀

子松節

子松梓

子堅矩 子雄悅 子光叶 子辛仁

子漢灼 子仲式 子端 子之柱 子放俊 子唐佑

子堅益 子誠 子聃 子和謙 子迥 子玎 子國樞 子升 子賢

子聰

子現

全北吳木

南金海

南金海

南金海

南金海

南金海

南金海

南金海

南金海